

"나는 기생충이야"

폐흡충 이야기 ①

李 純 炯

기생충 가운데 방랑벽(放浪癖)이 가장 심한 기생충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폐흡충(肺吸虫)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폐흡충은 겨레가 무척 번성하여 30여종이나 된답니다. 이 집안내가 서로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폐흡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우리 겨레가 확실히 몇종(種)인지 잘 모를 정도지요.

이 가운데서 사람에게 흡아와 병을 일으키는 종류는 우리 웨스텔만 폐흡충을 선두로 하여 3종류가 있고 그 밖에 인체기생이 거의 확실하다고 인정된 것이 서너 조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끼는 한국에서는 우리 웨스텔만 폐흡충(한국에서는 통상 폐흡충, 페디스토마라 불

리웁니다) 한종류만이 사람에게 기생을 하며, 최근에 발견된 이락촌 폐흡충은 주로 쥐같은 설치동물에 기생을 합니다. 우리 폐흡충의 종류도 많고, 사람에게 흡아오는 종류도 많은데 비해 한국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 종류만이 살고있고 또 사람에게 흡아오는 종류는 유독 우리 웨스텔만 폐흡충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때 우리 웨스텔만 폐흡충은 무척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민에 의하여 선택 되었으니까요.

실상 우리 폐흡충 웨스텔만은 사람보다도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 너구리같은 육식동물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폐흡충이 사람들에게 처음 알려진 것도,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해부했을 때 그 폐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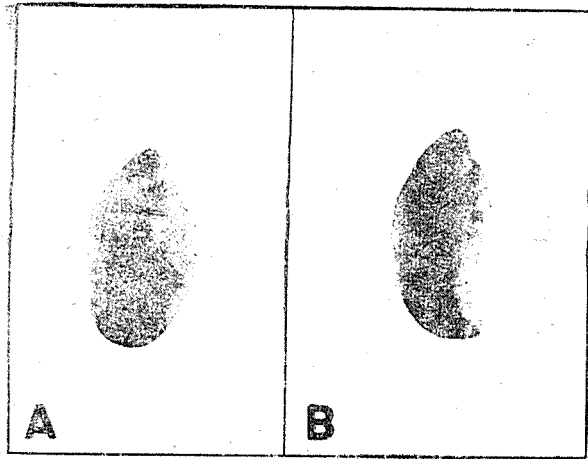


그림 1: 폐흡충의 생김새
A: 腹面 B: 側面

에 있던 우리 선조가 체포되면서였지요. 약 100년전쯤 된답니다.

우리 폐흡충은 한국이외에도 일본, 중국, 태국, 인도등 아시아지역에 널리 퍼져 있으나 특히 극동 지방이 가장 중요한 유행지로서 손꼽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으뜸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함경북도 일부지역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퍼져있는데 특히 전라남도과 제주도에 많다고 합니다.

1924년에 전국적으로 가래(咯痰) 검사를 하여 우리의 귀여운 알을 찾아내는 거창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35만명 검사받은 사람 가운데 2

만 5천명 (7.9%)이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지방별로는 전라 남도가 46%로 최고에 달하였다 합니다. 이때의 기록으로는 환자가 많은 동네에는 논두렁이나 길가의 풀이 서벨경계 피쉬인 가래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고장에서는 물이나 빠져 이런 토질(土族, 우리 폐흡충병을 허파토질이라 불렀습니다)에 걸린다 하여 주민들이 집과 동네를 버리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폐가(廢家) 앞마당에 풀이 자라한걸을 넓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한국인구

의 약 5%가량이 우리 폐흡충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흡충으로서서는 한국의 금수강산에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만 조국근대화를 위해서 한창 일하시는 한국의 여러분을 괴롭히고 건강을 해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답니다. 우리는 사나운 산짐승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의 여러분들중에서 무지막지하고 조심성 없는 분이 우리 폐흡충을 강제로 납치를 해가니 어찌합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폐흡충은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사람의 폐속에 들어가 삽니다. 폐속에 들어가면 보통 주머니모양의 총낭(虫囊)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 한 총낭안에 두마리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잘 자라면 콩알만해 집니다. 학자들이 측정한바에 의하면 평균 키가 7.5~12mm, 폭 4~6mm, 두께가 3.5~5.8mm나 된다 나요.

다른 흡충과는 달리 두께가 꽤 두꺼운 것이 특징인데 배쪽은 평평하고 동쪽이 볼록 올라와 사람으로 치면 곱추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하겠읍니다.

물론 흡충(디스토마)이니까 입은 두개라 할 수 있지요. 그밖에는 모

두 다른 흡충이 갖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 1)

폐속에 살고 있는 우리 폐흡충은 황금빛갈의 큰 알을 낳습니다(그림 2)이 총란이 기관지를 통해서 가래와 함께 사람몸밖으로 배출되지요 환자들의 가래를 보면 쇠가 녹슨것과 같은 빛갈을 한 알뭉치가 가는 실처럼 붙어 있는데, 얼른 보면 피가 섞여 나온 것처럼 보인답니다. 때로는 정말 피로 섞여 나오기 때문에 종종 폐결핵환자로 오인된 일도 많습니다.

우리 폐흡충란이 가래와 함께 몸밖으로 배출되는 외에 가끔 어린이나 가래를 삼키는 버릇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대변에도 섞여 나오게 됩니다.

몸밖으로 나온 우리의 총란은 25°C~30°C의 온도에서는 15~20일이면 미라시디움이라는 애벌레를 갖게 되고 애벌레는 곧 알 뚜껑을 열고 물속으로 헤엄쳐 나오게 됩니다. (그림 2) 이때 다슬기라는 민물 우렁이를 만나면 곧 그 살속으로 파고 들어가 무성 생식을 하여 20여개의 셀카리아라는 애벌레가 됩니다. 이 애벌레는 토끼꼬리와같이 작고 귀여운 꼬리를 갖고 있어 小尾形셀카리아라고 불리웁니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부교수·의박>